



폴 스티븐스(Paul Stevens),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신학을 말하다

일터 신학

📍 번역_전성민(VIEW 교수), 사진_신동현 (VIEW 학생, 선교사)

캐나다 밴쿠버의 VIEW(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는 매년 저명한 학자들을 초청한다. 지난 9월, 일터신학자인 폴 스티븐스(Paul Stevens, 리젠트칼리지 명예교수)의 강의를 밴쿠버 해브론교회에서 실시 되었다. 강의의 일부를 소개한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영원히 사는 것

영국의 청교도였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는 “신학이라는 것은 복되게 영원히 사는 학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신학은 연구하는 학문이 아닌 삶에 관한 것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복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포함합니다. 신학은 삶과 일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신학은 기독교신앙과 세상의 일을 조합하고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에는 사례를 받든 안받든 이해와 실천, 윤리와 영성이 포함됩니다. 중세 유럽에서 신학은 삶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연구였습니다. 중세 독일의 한 도시 지도를 보면, 성곽은 완벽한 원형이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안에 종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tip 일터신학, 기독교신앙과 이 세상의 일을 조합하는 것

그리스에서 한 수도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장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는 분인가요?” 저는 “일터 신학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기독교신앙과 이 세상에서의 일을 조합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수도승이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지 못해서 일터에서 목회자로 전향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능합니다.

파편화된 신학, 위계구조 속 직업

조직신학, 윤리 혹은 도덕신학, 영성신학, 실천신학과 응용신학 등 신학은 너무나 파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일요일은 거룩하고 월요일은 거룩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 등 많은 것들이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위계가 생기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마음과 정서에 들어갔습니다. 이 직업 위계구조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선교사가,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목회자가 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돕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돕는 직업, 예를 들어 법률가, 사회복지가, 의사 등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경찰,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 증권거래인, 상업, 무역에 종사하는 분들, 정치인들, 마약거래상 등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 어떤 문화에서는 가정주부를 높게, 더 좋은 직업으로 여기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하대하기도 합니다.

밴쿠버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목수 일을 시작하자 사람들은 제가 사역을 그만 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업 위계구조의 맨 위에서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목수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지저분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깨끗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직업들은 육체적으로는 깨끗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몇몇 사람들의 얼굴을 짓밟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다. 하지만 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의 일은 당신의 신앙과 같은 길 위에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직업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신앙과 일의 관계

신앙과 일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신앙과 일을 서로 다르게 보는 경우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죠. 그러나 월요일에는 마치 무신론자처럼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동화입니다. 세속화되어 그 일에 동화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신앙과 일,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세 번째 관계가 이뤄집니다. 이때에 일터는 기가 막힌 선교 현장이 됩니다. 사업과 선교를 구별해 놓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 선교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하나로 이해한다면 선교로서의 사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일이 서로 다른 구획에 있을까요? 종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사업과 선교를 나눠서 생각하다가, 결국은 선교로서의 사업으로 생각이 변합니다(Entering the integrative process: Mission). 그 다음은 일터의 영성(Mysticism: Spirituality)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을 위한 영성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영성도 고려하게 되죠. 세 번째로 일터의 윤리 혹은 도덕과 관련해서 종합해 보게 됩니다(Morality: Ethics). 네 번째,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신학적 작업에 이릅니다(Meaning: Theology).

신학교에서는 주로 위로부터의 신학을 배웁니다. 계시된 범주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터신학은 아래로부터의 신학, 우리 삶의 현장, 삶의 상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주제들을 논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 하나님의 나라, 성령 등 아주 위대한 주제들이죠.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사람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반추하고 성찰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필요를 탐구해보는 것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시간, 부끄러움 등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세속 문화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문화를 바꾸는 아래로부터의 신학입니다.

tip 아래로부터의 신학?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사님을 축복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단기 선교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위해,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 년 동안만 그것들을 하지 말아보세요.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매일 매일 일하시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우리가 당신의 일터에서 사역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등등. 이렇게 52주 동안 하면 완전히 안과 밖이 뒤집어진 새로운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com+pany, 빵을 나누다

일터라는 것은 보통 어떤 장소를 말합니다. 어떤 마을에 시장(일터, Market Place)이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사고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사고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문이나 정보도 주고받고, 가치 또한 서로 교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신앙, 믿음까지도 나눕니다. 대부분의 도시에는 시장보다 쇼핑몰이 있고, 증권도 거래됩니다. 무역을 통해 거리에 상관없이 사고팔 수도 있고요, 사이버 공간(cyber space, 인터넷)의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사고파는 것이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뜻하는 ‘company’는 두 개의 라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ny’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공유된 빵’, ‘빵을 나누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사(company)입니다. 즉, 시장 혹은 일터는 이런 나눔과 생생한 삶이 경험되어지는 곳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일터(시장, Market Place)는 빌딩에 들어가고,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일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일터는 공유된 영적 형성의 공간이자 나눔의 장이며 경기장이라는 것입니다.

일터를 신학적 현상으로 살피기 1. 창조

이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열어봅시다. 창조라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이 물질적인 세상,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곳이 의미가 있고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의 잠재력을 열고 펼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이 창조세계 내에 서로 사고 파는, 만나는 인간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필요로 하고, 저 역시 다른 이가 가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교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이것은 창조세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일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피조물일 뿐 아니라 창조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실제적인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혼란이 아닌 질서의 공간에 있는 질서의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만드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모든 질서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터에도 질서가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일터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언약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약, 일터에서는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신뢰가 없다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언약, 약속이라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계약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들 아래서 재화와 용역들을 서로 교환하기로 동의한 것이며, 서로에게 속하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언약에서 시작합니다. 언약의 가장 핵심에는 관계적인 토대가 놓여 있습니다. 교환 이전에 '속하다'라는 관계적 의미가 먼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 공식에 밑줄을 그어 봤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나는 지구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다. 너를 불러 일을 시키겠다.”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언약에는 해야 할 의무들이 따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삶에서 신실할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만일 신실하다면,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과 사람들이 많아지고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언약에 순종치 않는다면, 언약의 저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 자체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혼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지점입니다.



일터를 신학적 현상으로 살피기 2. 타락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죄, 타락입니다. 타락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꾼들, 일 자체, 일하는 일터, 이 시장 시스템조차 타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자꾸 높이려는 인간의 본성을 압니다. 성적인 학대와 착취, 비난의 화살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 뇌물 등 수많은 죄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서로를 물어뜯는 경쟁, 불공정한 행위, 건전하지 못한 경제체제, 구조적인 실업문제, 노동 착취, 공정하지 않거나 임금 체불 등의 일들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게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죄가 차고 흘러넘칩니다.



남미의 신학자였던 르네 빠딜라(Rene Padi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체화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소위 말하는 복음 사역과 세속적인 일은 실제로 상호의존적이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일터를 신학적 현상으로 살피기 3. 구속

성경에는 “그러나”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들을 구속해내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일터’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과 공간에 살롬을 가져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터의 행위들은 타락의 결과들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을 경감시키는 가장 주된 방법은 원조나 나눔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이로써 사회는 타락의 나락에 빠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반은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신자들에게 선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창출된 부가 가난을 경감시킬 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가져올 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가져옵니다. 남미의 신학자였던 르네 빠딜라(Rene Padill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체화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소위 말하는 복음 사역과 세속적인 일은 실제로 상호의존적이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루이스(C. S. Lewis)는 “우리의 일이 하늘의 일들을 나누는 고귀한 일임을 나는 느낀다. 만약 신자의 영혼이 성령의 전이라면 노동의 현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장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아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가 가게가 됐건 은행이 됐건, 실험실이 됐건 학교가 됐건 공장이 됐건 그곳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고 취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 일까지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일터를 신학적 현상으로 살피기 4. 완성

네 번째 성경의 위대한 주제는 종말 혹은 완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에 존재하는 구원된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머리술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머리가 이상하게 나거나 없지 않을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머리도 다시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천국에서 온전한 전적인 인간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일과는 다른 그 일이 마치 노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나면서 일과 놀이가 분리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을 6백만 번씩 불러도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tip 하나님에게는 누구의 일이 중요한가?

J. I. 패커는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선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최고 교리들은 항상 적용이 필요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신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학은 두 개의 초점을 가진 타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재의 상황이라는 타원입니다. 우리가 일의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한국의 상황, 문화와 관련하여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누구의 일이 중요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의 일은 하나님께 중요하지만, 사업자의 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일하는지, 모든 일이 원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문화에서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의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등 일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의 신학은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의 의미를 밝혀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판사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1년 후 그는 자신이 왜 판사가 되었고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의 신학은 일의 위치를 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주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살펴본 일터

첫 번째로,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성의 일부입니다. 세상의 좋은 일들은 다 주님의 일입니다. 종종 “이제 사업은 그만두고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그만두고 이제야 주님의 일을 시작한다면 전에 했던 일은 뭐죠? 지금 이미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종류의 주님의 일로 옮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속적인 일에서 이제 주님의 일로 바꿨다.” 또는 “파트타임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전임 사역을 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파트타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온전함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 또 누군가는 필름을 만들고, 치료하고, 법을 만들고, 교육하면서, 가정주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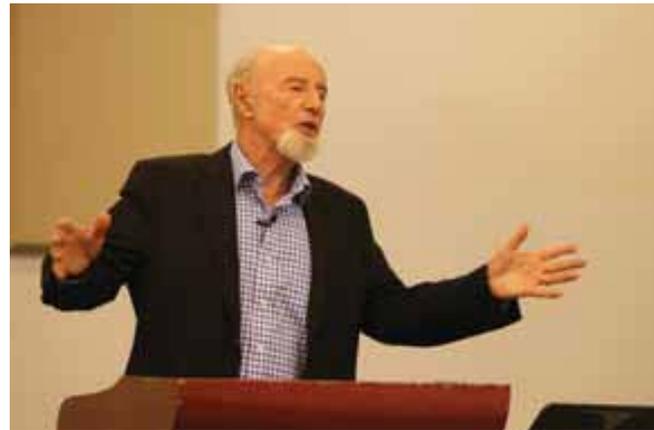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 선지자, 왕적 통치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섬김은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섬김은 세상 안에서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사회에서의 직업을 위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들, 즉 교회가 아닌 사회의 일로 부름 받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완벽주의자들이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종교적 완벽주의자들은 구약에 나오죠. 하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입니다. 사역이라는 개념의 토대를 신약이 아닌 구약에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부으심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 제 첫 멘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무식한 말이 없다며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한 후 각자의 삶과 일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미친 짓이 바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93세 되신 어르신 이 선교하러 다른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로 파송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는 분들만 보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00% 교회 전부가 월요일 아침마다 파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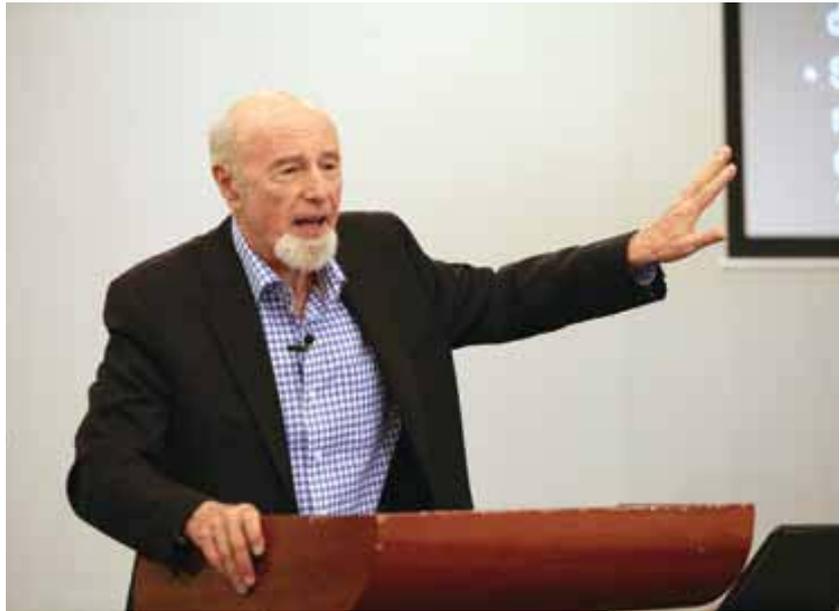
다섯 번째 결론은 사회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섬기지 못할 만큼 약한 영역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갈 수 없는 공간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갈 수 없는 곳이라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tip 왜 일하는가?

그렇다면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회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창조의 잠재력을 펼침으로써 그 목적을 섬긴다고 말입니다. 저는 광야를 아주 좋아합니다만, 하나님은 온 지구가 광야가 되길 원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시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합니다.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도 일합니다.



지난주에 피 검사를 했는데요, 제가 피를 뽑는 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이죠.”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진단에서부터 모든 일들이 시작되니까요. 약을 제공하거나 수술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녀는 그 일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둑들은 더 이상 훔치지 말고 필요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기 위해 일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돈이 아주 많아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주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영역이자 경기장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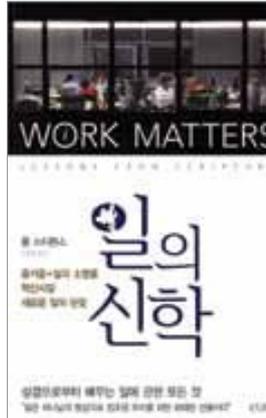
여섯 번째, 어떤 일이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그 일에 어떤 종교적인 특징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또한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남는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영혼과 관련된 일을 할 지라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한 어떤 일이라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했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죄들이 깨끗하게 씻기고 정화된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된 그곳에 우리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목회적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사역지로 보내기 위해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차적인 사역 장소는 어디가요? 결코 교회 건물 안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러니 교회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 이웃 등 현장 가운데서 더 많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구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교회가 교회를 교회 안으로만 불러들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위성 교회도 만듭니다. 교회는 교회를 교회 안으로 채우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그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일의 존엄성과 의미에 대해 아주 많은 관점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것을 대부분 무시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의 깊게 설교를 들어봤는데, 아주 좋은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루 설교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면서 왜 이런 걸 놓쳤을까’ 하고 의아해했던 것이, 성경에는 일에 대한 언급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그걸 놓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과 관련된 모든 본문들을 영적으로 바꿔서 이해하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것이 제가 『일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Work Matters(『일의 신학』의 원제목)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한국말 제목이 아주 잘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등장인물들을 통해 이야기 형식으로 일에 대해 썼습니다.

tip

『일의 신학(Work Matters)』, 폴 스티븐스, CUP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일에 관한 모든 것. 폴 스티븐스 특유의 화법으로 실제적이면서도 깊이 있고 재미있게 우리 삶 속으로 적용하게 하는 책이다. 성경 인물들을 ‘일’이라는 개념에 적용하여 성경에 나타난 일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멋진 선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일이 주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삶 속으로 질문을 던지다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일요일에 집중했던 것들의 방향을 월요일로 전환시키고, 목회 사역이라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비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원론을 거부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만 거룩한 일을 하고, 법률가들이나 사업가들은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가르침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들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백성이라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조되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모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



폴 스티븐스(R. PAUL STEVENS)는 1937년 캐나다 출생. 맥매스터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30여 년간 목회자로, 때로는 자비량 사역자로 섬겼으며, 1986년 밴쿠버의 캐리홀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여 이듬해부터 리젠트칼리지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평신도 신학과 리더십, 생활 영성 분야를 가르쳐 왔다. 2014년 현재 리젠트칼리지에서 장터 신학과 리더십 분야 명예교수로 있으며,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 바케대학원대학교와 싱가포르에 있는 비블리컬 신학대학원의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철강회사를 경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잡역부에서부터 회계, 사무직 등 두루 경험을 쌓았고, 목수 일을 배워 건설업 분야에서 일하며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긴 경험을 통해 예배당에 갇힌 신학이 아닌 삶의 현장을 신학의 무대로 삼는 ‘생활 신학’을 삶으로 살아 왔다.

저서로는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일 · 삶 · 구원」,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 「폴 스티븐스의 결혼이야기」,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IVP),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조이선교회), 「그분의 말씀 우리의 삶이 되어」(공저, 복있는 사람),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공저, 미션월드) 등 30여 권이 있다.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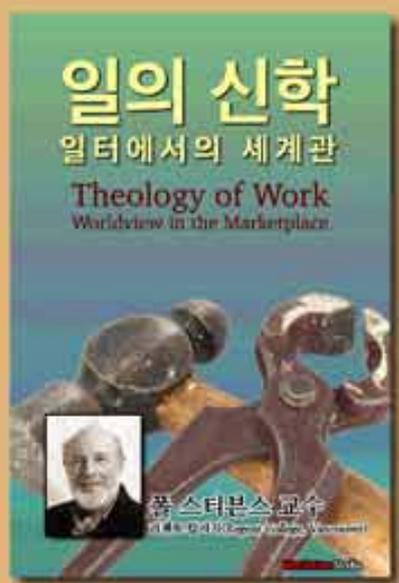
기독교 계통에서 사역을 준비하고 있거나 캐나다에서 유학이나 안식년을 계획하십니까?

지 원 안 내

1999년부터 캐나다 최고의 기독교대학인 Trinity Western 대학의 신학대학원인 ACTS(학장: Ken Radant 교수)에서 VIEW(원장: 양승훈 교수)가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 과정 및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ipCS)과정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MACS/DipCS 과정은 최고의 기독교세계관 및 기독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15년간 150여명의 졸업생과 350여명의 동문들(9학점 이상 이수)을 배출하였습니다.

모집분야	기독교세계관 문학석사(MACS-Worldview) 과정(54학점/2.5년) 기독교세계관 디플로마(DCS-Worldview) 과정(29학점/1.5년)
MACS/DCS 과정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북미주신학교협의회(ATS)가 인정하는 TWU대학원의 정규 학위 과정입니다. ② 한국과 캐나다의 최고의 교수진들이 성경, 신학, 리더십, 세계관, 과학, 가정, 사회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 조망을 가르칩니다. ③ 신앙과 삶의 일치, 전공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 조망 등, 삶에 직결된 내용을 강의합니다. ④ 배우자는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졸업 후 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한 기독교 신자. 토플 점수 불필요
교수진	VIEW 전임교수, ACTS 교수진, 한국어 및 영어권 겸임교수진 20여명
원서마감	4월 1일(가을학기) / 전년도 8월 1일(봄학기)
문의처	worldview@twu.ca view.edu, acts.twu.ca 홈페이지 참고 TEL: 1-604-513-2121(교 3834,3838)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캐나다(PST) 시차를 고려해주세요.(한국시간 + 8시간)

폴 스티븐스 교수의 『일의 신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본 강의는 구입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테블릿, 스마트폰, 스마트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https://vimeo.com/ondemand/wvl101k>

